A Study on the Marek(抹額)

Jeon, Hyun-Sil* · Kang, Soon-Ch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rek(抹額) is the headgear, which is a form of hempen hoods. This band worn around the head was the most basic form found as a relic of the ChanKuo Period(戰國時代) in the ancient China. A history book of an old Chinese country Post-Han ≪History of HouHan(後漢書)≫ had recorded that a soldier wore a red band around his head that was called Pa(帕).

In the Han dynasty(漢代), Pa had been transformed into Chaek(幘) or a kind of a hemp cap [巾] while the headgear had still remained as the band form and called Marek from the Tang era(唐).

The literatures of the Tang era had referred the red Marek of soldiers, and other literatures of the later period had recorded that of the previous headgears of the band form were related with Marek.

Since the Tang era, white or yellow Marek except red one for soldiers had been worn by soldiers, musicians, dancers and singers in Yuan (元) and Ming(明) of China.

The colors was recorded in red on documents mostly, this red implicated soldiers for symbol of terror. As for a wearing method, Bokdu(幞頭) and a square cloth were rather put on the head orderly, and the cloth was rolled up from back to front to be fixed on the topside of Bokdu, instead of directly wearing the Marek on the head. This fact was documented in an old history book ≪The history of 25 Eras(二十五史)≫.

Consequently, various colors of Mareks had been used for each purpose in the lower classes like soldiers or dancers than in the higher classes, and therefore, Marek was not commonly used.

On the other side, a wall painting in Princess Jeonghyo(貞孝公主)'s tomb of the Parhae(渤海) period described the portraits of twelve persons, and among them, two Siwui(侍衛) put on the red Marek. Quoted from the record of a history book of the Tang era system <Tongjun(通典)>, a history book of Three Kingdoms(三國時代) of ancient Korea ≪SamGukSaKi(三國史記)≫ described that four dancers of Koguryo(高句麗) wore Marek on their heads with the costumes of Koguryo, one of those Kingdoms.

In consideration that the book of ≪Tongjun≫ was the literature of the Tang era so that Marek mentioned in this book was followed by their name, the Marek of Koguryo dancers shown in the history book ≪SamGukSaKi≫ might be a kind of Koguryo style hemp cap[巾].

The Marek of Parhae had succeeded to the headgear of Koguryo and the identity was on Koguryo.

抹額에 관한 연구

전현실*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抹額은 머리에 두르는 두건 형태의 쓰개로 그 용어는 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런데 말액의 전신일 것으로 생각되는 머리를 두르는 띠 형태의 것은 쓰개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으로 이미 戰國時代의 銅人像에 나타나고 있는데, ≪後漢書≫의 기록 중에 秦나라 武將은 머리에 붉은 색의 머리 띠 즉 絳帕를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秦代의 帕 혹은 帕首는 머리에 두르는 띠 형식의 것으로서, 이는 한대에 이르러 顔題와 전면에 山 모양이 가해지면서 幘으로 발전하였으며 머리를 두르는 띠 형상의 것은 여전히 두건 형태로 남아서 唐代부터는 이를 말액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즉 唐代의 문헌에는 이러한 띠 형식의 것을 말액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武士들이 붉은색의 말액을 착용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대의 문헌에도 종종 이전의 띠 형태의 쓰개가 말액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말액의 유래는 당 이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 용도 및 색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唐 이후 말액은 元이나 明에서도 儀衛나 樂工, 舞人이나 唱人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백색 혹은 황색 등의 말액도 붉은색의 말액과 함께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문헌에 기록된 武人用 말액의 색상은 대부분 紅이나 緋와 같은 붉은색 계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붉은색 계통의 색상은 예부터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武人의 말액도 홍색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착장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사용한 예보다는 幞頭의 前面 下段部에 사각형의 천으로 머리에 두건을 두르듯이 감싼 형태로, 뒤통수에서 천을 한번 꼬고 뒤에서 다시 복두의 前面 頭頂 부분으로 말아 올린 후 고정시켜 착용한 예가 많다. 이를 입증하듯 ≪二十五史≫의 여러 문헌에는 말액을 항상 복두 다음에 기록하여, 복두를 착용한 후 그 위에 말액이 착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당대에서 명대까지 말액은 다양한 색상이 있어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착용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계급의 武人이나 儀衛 혹은 舞人이나 唱人까지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쓰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渤海 貞孝公主墓 벽화에는 12人이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인의 侍衛가 머리에 紅色의 抹額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발해에서도 말액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高句麗條에는 唐代의 <通典> 기록을 인용하여,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고구려식 복장에 말액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通典≫은 盛唐 때의 문헌으로, 여기에 언급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착용했다는 말액은 唐人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기록일 뿐이므로, 이와 유사한 쓰개는 이미 고구려 舞人들이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당에서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사람들이 착용했다고 하는 말액은 唐代의 말액과 유사한 고구려의 것으로서, 발해가 고구려에 정체성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발해인의 말액도 고구려에서 그 근원은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巾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